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토틀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코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키타)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토틀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클럽 우리 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재)	00 MBC 여성토크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이슈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30 뉴스 특급	00 TV 야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MBC 네트워크특선 방송대상 수상 앙코르 (육식의 반란?)	00 MBC 저녁뉴스 40 헬로키티 아하 과학탐험대	30 예니영국
2 40 직연직설	30 영상 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다큐+김성	00 SBS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양이 보인다
3 55 정오관의 시사변법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 날(재)	00 후토스 물어버린 숲(재) 25 유후와 친구들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키티 아하 과학탐험대	10 우리야이기가 달라졌어요(재)
4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잔단 55 토틀 생활 체조(재)	25 두리동심 몽개공방 2 55 법상의 신(재)	30 퓌? 퓌! 키즈쿨	00 공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강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뽀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30 닥터 지.바.고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	00 월화 드라마 (아장군 일지)	00 월화드라마 (유희)
11 00 부부극장 골짜기(재)	30 KBS 뉴스라인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라인	15 헬리콥터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큐드라마 썬인(재) ①:20 광화문 콘서트	50 TV 책을 보다(재) ①:30 T타임	3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특집 (나는 국가대표다) 45 해외걸작드라마 (오면 블랙- 회망의 빛)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아시안게임 특집 스포츠 특선 (0.014초 승부사 박태환) ①:35 바비검-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상성 고흥별곡



“연애·결혼은 아직 ...
맘껏 연기 하고파”

장나라, 사랑스러운 연기 선보여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중영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를 막 끝내고 돌아온 배우 장나라(33)는 14일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시청률 10.5%(남순코리아 전국 기준)로 종영한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대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유티 있고 착한 드라마로 애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장나라는 드라마에서 평범하고 자신감도 없던 여성이었지만 운명의 남자 이진(장혁 분)을 만나면서 사랑 앞에 당당해진 미영을 연기했다. 장나라는 초반부 비현실적으로 착하기만 한 미영이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여성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모습일까 봐' 연기가 조심스럽고 버거웠다고 털어놓았다.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마음고생만 하는 미영을 연기하면서 "미영이 지치지 저도 정말 지치고 힘들었다"는 게 장나라의 이어서 설명이다. 그럼에도 장나라는 "미영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연기로, 배우 장혁(38)이 작정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연기를 잘 받아냈다. 장나라는 12년 만에 재회한 장혁과의 연기 호흡에 대해 "100점 만점에 최고다. 좋은 선배와 함께 연기했기에 이번 드라마가 가능했다"고 치켜세웠다. "혁 오빠는 내장에 개그 영혼을 숨겨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애드립을 1시간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웃겨서 NG를 많이 냈어요. 나중에는 촬영 시간이 촉박해지니 저도 필사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꼭 참고 넘어가다 보니 혁 오빠 개그가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대만 드라마가 원작이다. "원작을 보지 않았다"는 장나라는 두 작품을 비교해달라는 주문에 "저희 극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노력하지 않아요. 특히 이진 캐릭터만큼은 원작 이랑 비교했을 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언제이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모습의 장나라이지만 어느때 그도 삼십 대 중반을 눈앞에 둔 나이가 됐다. 장나라도 평소 또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 당황스럽고 별생각이 다 들어요. (웃음). 사실 하루 단위로 생각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연애도 하기 싫다가 다음날은 연애는 뜰까치고 시집은 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장나라는 그러면서 "제가 세워놓은 허황한 계획은 37살까지는 미혼일 때 하기 좋은 연기를 최대한 하고 그다음 결혼하는 것"이라면서 일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장나라에게 극 중 장나라를 사랑하는 두 남자, 이진과 키다리 아저씨 같은 다니엘(최진혁 분) 중 한 명을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느냐고 물었다. "촬영장에서도 그 점이 화두였어요. 하하하. 그런데 저도 미영을 연기하다 보니 미영 감정에 충실해져서 눈에 건이 오빠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니엘도 정말 사랑스러운 수밖에 없는 우직한 남자이잖아요. 3년을 지켜준 그 사랑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나라는 2001년 1집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로 데뷔한 이후 히트곡 '고백' 등을 쏟아낸 한때 인기 가수였다. "어느 순간 심신이 지치면 몸이 무언가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앨범을 내고서야 알았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작품 활동을 쉬면 음악 레슨을 받고 다시 노래를 해볼 의향이 있어요. 저 자신을 잘 추스른 다음 가능해지면 노래도 다시 하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도전하고 싶은 배역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장나라는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3가지 있었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첫번째는 MBC 드라마 '다모'(2003)에서 하지원 선배가 맡았던 역할이고 두번째는 MBC 드라마(2007) '히트'에서 고현정 선배가 했던 역할이에요. 두 선배의 에너지가 정말 매력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혁 오빠가 KBS '추노'에서 맡았던 대길 역할이요." 장나라는 "어렸을 때는 남자 역을 연기해보고 싶었다. 대길처럼 펄펄뛰는 짐승 같은 역할이 좋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장나라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배우다. 그는 "아직 당장은 중국에서 활동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45 코코몽2	19:00 지피이티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말레이시아)(재)	15:30 울리베아	20:40 다큐 오늘
07:30 종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5:50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탄자니아)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황골 마을 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	12:15 시사채널E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큐프라임
08:20 두다다콩(재)	13:00 생활백과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10 생활백과	16:45 공피와 친구들(재)	22:45 달라졌어요
08:50 공피와 친구들	13:40 출가승 수학 EBSMATH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원더 볼츠(재)	13:50 사이틴(Sci-teen)	17:15 종선 코끼리 발루보	24:05 지식채널e(재)
09:20 출동 슈퍼왕스(재)	14:00 두기 탐험대	17:30 꼬마버스 타요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빼꼼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45 두다다콩	01:00 EBS 결작 다큐멘터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7:00 2014 공민증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5-2)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I A형)	07:30 나의 성공비결	16:50 " (국어6-2)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5 " (국어A형)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02:30 " <영어-듣기>	14:00 " (홀리 I)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대비 강좌	18:00 TV 중학 <문학 3>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화학 I)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40 " (비문학 3)
04:10 " (사회)	15:40 " (생명과학 I)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지구과학 I)	11:10 "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윤리와 사상>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06:40 압축탐스런 (홀리 I)	18:10 " (법과 정치)	12:30 등업산공 <수학1(상)>	21:40 한국기행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13:10 " <수학2(상)>	22:00 등업산공 <수학3-2>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13:50 " <과학2(상)>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A형>(재)	14:30 " <수학2(상)>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회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5:20 만점왕 <국어3-2>	24:00 백점공략 <수학 1>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15:50 " <국어4-2>	24:30 "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5일(음 8월 22일 己丑)

36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48년생 선택을 잘 하라. 60년생 인식을 같이 하겠다. 72년생 격식을 갖추자. 84년생 방식과 강도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클 것 이니라. 행운의 숫자 : 21, 83	42년생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4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66년생 무난하게 진행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78년생 자의적인 발상은 오판을 야기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 행운의 숫자 : 06, 65
37년생 소홀함이 없어야 잘 풀리리라. 49년생 생각만으로는 한 계가 없으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61년생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73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85년생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62	43년생 무리한 방법은 피하고 봐야겠다. 55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으리라. 67년생 중요한 일이 겹쳐서 분주 해지겠다. 79년생 맹목적이러면 핵심 사항을 간파하여 살기로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행운의 숫자 : 66, 70
38년생 드디어 제대로 기량을 발휘 할 때에 이르렀다. 50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 될 것이니라. 62년생 결함이 비로 소 눈에 띄게 된다. 74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해야만 마무리가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49, 02	44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호기가 있느니라. 56년생 무리하여 가고 있으니 만사행통하리라. 68년생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80년생 오늘 다루는 것이 일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78년생 과잉 조처는 역효과를 낸다. 행운의 숫자 : 08, 18
39년생 살펴보면 중차대함을 찾게 된다. 51년생 승과와 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63년생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75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끄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7, 75	45년생 행운이 생기는 근원적인 계기가 될 것이니라. 57년생 걸 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 69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다루어 보면 알 수 있다. 81년생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7, 92
40년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 나타나니 형국이니라. 52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고 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4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76년생 정도를 걸으면 봄날이오라. 행운의 숫자 : 33, 38	46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느니라. 58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된다. 70년생 진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의 활용이 절실하다. 82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문이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4, 56
41년생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53년생 부담감을 갖겠지만 막상 일하고 보면 별 것이 아님을 알리라. 65년생 바로 잡는 것이 좋다. 77년생 고진감래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69, 25	47년생 막혀있던 물꼬가 트이리라. 59년생 막연한 추정은 심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화근이 된다. 71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자. 83년생 통발적인 국세를 이룰지도 모르니 침착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액션 연기 힘든만큼 재밌죠”

정용화, tvN '삼총사' 명쾌한 무사 박달향 역

액션 연기를 할 때 웃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쏟아져도 정말 재밌었어요.” 정용화는 “그 자극 때문에 촬영장을 벗어나 현실로 들어가도 기분이 좋다고 웃는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정말 달타냥 역할이 좋다”면서 작품과 역할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초반에는 혼자 말 타는 장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배우들과 자주 본다”고 설명한 정용화는 그 사이 돈독해진 이진욱 등과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였다. 특히 양동근(35)에 대해서는 “양동근 형은 평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웃다가 액션장면을 촬영할 때는 눈빛이 돌변하고 맛있는 포스를 풍긴다”고 말했다. 정용화와 같은 그룹의 이정진(23)은 현재 SBS 월화극 '유희'에 출연 중이다. 정용화는 “요즘에 다른 멤버들을 통 못 봤지만 우리 드라마를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은 온다”면서 “추석 때 우리는 쉬었는데 동생인 이정진이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등장인물 소개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부터 등장인물 간 갈등과 대립이 명확해지고 좀더 활극 느낌이 날 겁니다. 저도 시청자로서 정말 기대됩니다.”

액션 연기를 할 때 웃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쏟아져도 정말 재밌었어요.” 정용화는 “그 자극 때문에 촬영장을 벗어나 현실로 들어가도 기분이 좋다고 웃는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정말 달타냥 역할이 좋다”면서 작품과 역할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초반에는 혼자 말 타는 장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배우들과 자주 본다”고 설명한 정용화는 그 사이 돈독해진 이진욱 등과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였다. 특히 양동근(35)에 대해서는 “양동근 형은 평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웃다가 액션장면을 촬영할 때는 눈빛이 돌변하고 맛있는 포스를 풍긴다”고 말했다. 정용화와 같은 그룹의 이정진(23)은 현재 SBS 월화극 '유희'에 출연 중이다. 정용화는 “요즘에 다른 멤버들을 통 못 봤지만 우리 드라마를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은 온다”면서 “추석 때 우리는 쉬었는데 동생인 이정진이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등장인물 소개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부터 등장인물 간 갈등과 대립이 명확해지고 좀더 활극 느낌이 날 겁니다. 저도 시청자로서 정말 기대됩니다.”

산골 백발 소녀 이야기

KBS 1TV '인간극장' 오늘부터 방영

충남 공주, 읍내에서도 차로 한 시간을 더 들어가는 협첩산 중 오지마을. 달랑 네 가구가 터잡은 이곳에 145cm 자그마한 체구가 생기 넘치는 웃음을 짓는 백발 소녀 이기남(91) 할머니가 산다. 아흔살이 넘었지만 지금도 고추 포대를 가뿐히 들어 올리고, 마구 날뛰는 황소도 '워어~' 손길 한 번에 안정하게 만드는 할머니는 체력도, 마음도 여전히 이말정준이다. 그런 할머니를 결연하게 바라본다. 83년생 통발적인 국세를 이룰지도 모르니 침착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90

명숙(68) 씨와 딸아들 무일(70) 씨가 있다. KBS 1TV '인간극장'은 15~19일 오전 7시50분 '백발의 정춘'을 통해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한다. 고추보다 매운 게 시집살이이지만 며느리 명숙 씨는 가난 할머니와 함께 산 44년 동안 그 매운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8남매 딸며느리에 총총시하 시어른들까지, 고생을 각오하고 온 시집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예쁘다", "잘한다"며 귀히 여겨주셨다. 아들 무일 씨는 유난히 사이좋은 고부 사이에 끼여 늘 한쪽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며느리에겐 언제나 "오냐 오냐" 하는 할머니지만, 아들께겐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무일씨는 일흔이 넘어서도 듣는 어머니 잔소리가 여전히 정겹다. 열여섯에 전기도 안 통하는 산골로 시집와 8남매를 키워내느라 약삭같이 살았다는 할머니는 이제 남은 세월 후회 없이 사랑만 주고 싶다고 한다. /연필뉴스